

9. 民間 物量 追加配定

資料提供：建設部

- 건설부는 상반기경제운용결과 건설투자가 상당히 진정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
 - 주택건설물량관리에 따른 애로를 완화해 주고 주택가격의 안정기반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하여
 - 당초 30만호를 유지하기로 하였던 민간부문의 주택건설물량을 5만호정도 추가하여 35만호수준으로 늘려주고 이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.
- 이처럼 물량을 추가로 배정해 주게 된 것은
 - 그동안 건설경기의 진정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건축을 제한하고 주택건설도 50만호범위 내에서 억제하여 온 결과 2/4분기건설투자가 진정되는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
 - 주택물량관리로 장기적체 민원이 집중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주택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점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.
- 이번에 추가된 물량의 시도별 배정기준은
 - 지역별로 민간부문의 사업승인신청물량이 적체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
 - 당초 할당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물량이 2만호 이상인 지역은 부족물량의 45%를 추가로 배정해 주고, 2만호미만인 지역은 30%를, 1만호미만인 지역은 20%를 추가로 배정하였다.
- 이에따라 그동안 적체가 심각하였던 수도권지역에 전체의 60%인 3만호정도가 배정되었고 부산·광주·대전에 1만호정도가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1만호는 기타도에 배정되었다.(시도별 배정내역 별첨)

민간물량 지역별 추가배정내역

〈배정기준〉

- 부족물량이 2만호 이상인 시도 : 부족물량의 45%
- 부족물량이 2만호 미만인 시도 : 부족물량의 30%
- 부족물량이 1만호 미만인 시도 : 부족물량의 20%

| 지역별 | 당초배정 (A) | 기승인 (B) | 관리잔량 (C=A-B) | 대기물량 (D) | 부족물량 (E=D-C) | 추가배정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계 | 300,000 | 253,253 | 46,747 | 188,501 | 141,754 | 51,700 |
| 서울 | 49,000 | 42,029 | 6,971 | 31,636 | △ 24,665 | 11,000 |
| 부산 | 26,800 | 22,919 | 3,881 | 21,373 | △ 17,492 | 5,000 |
| 대구 | 16,000 | 13,003 | 2,997 | 30 | 2,967 | - |
| 인천 | 18,500 | 15,166 | 3,334 | 5,000 | △ 1,666 | 300 |
| 광주 | 8,200 | 5,242 | 2,958 | 7,848 | △ 4,890 | 1,000 |
| 대전 | 16,300 | 18,578 | △ 2,278 | 8,366 | △ 10,644 | 3,200 |
| 경기 | 66,100 | 58,549 | 7,551 | 53,232 | △ 45,681 | 20,000 |
| 강원 | 7,900 | 6,530 | 1,370 | 7,754 | △ 6,384 | 1,300 |
| 충북 | 8,700 | 5,905 | 2,795 | 9,006 | △ 6,211 | 1,200 |
| 충남 | 10,400 | 8,940 | 1,460 | 5,500 | △ 4,040 | 800 |
| 전북 | 8,300 | 7,598 | 702 | 11,417 | △ 10,715 | 3,200 |
| 전남 | 9,900 | 9,502 | 398 | 9,074 | △ 8,676 | 1,700 |
| 경북 | 20,500 | 11,895 | 8,605 | 3,503 | 5,102 | - |
| 경남 | 29,300 | 24,696 | 4,604 | 14,683 | △ 10,079 | 3,000 |
| 제주 | 4,100 | 2,701 | 1,399 | 79 | 1,320 | - |